

Final Class

1 회차 :2021 사회 모의



Baccalaureate



Final Class :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0. 파이널에 앞서 일러두기

우리는 지금까지 논술에 있어 가장 형식적으로 기본이 되면서도 내용적으로 가장 어려운 연세대와 고려대 문제들을 풀어왔습니다. 경희대를 포함한 거의 모든 현시대의 통합논술은 일정 정도의 유사성을 띠며, 연고대 문제에 베이스를 두고 각 학교만의 스타일로 변형을 거쳐 왔고, 그 과정에서 학교마다의 스타일이 약간씩 다릅니다. 파이널시즌에는 파이널시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1) 마음을 열고, 학교에서 시키는대로 한다.

개념강의때 배운 것은 컴퓨터로 치자면 CPU 성능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CPU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도록 지금껏 성능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입니다. 은행앱과 게임앱의 룰이 다르고, 게임앱 중에서도 메이플스토리나 서든어택의 룰이 다르듯이, 각 학교마다의 룰을 철저히 지켜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형식은 100%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습니다.

(2) 학교 우수답안 형식은 암기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을 배워왔습니다. 이제와서 말하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미괄식구조를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때려죽여도 두괄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좇대가 없기도 합니다. 경향이 있는 학교는 반드시 그 경향을 따라가주도록 합시다.

1. 경희대학교 출제경향

(1) 연세대 문제의 유형과 비슷하지만, 독해 난이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세대학교 문제만큼의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는 어렵다.

연세대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경희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정도이다.

(2) 출제유형이 상당히 고정되어있고, 잘 바뀌지 않는다. 올해는 조금 특이할 수는 있다.

1) 1번 문제 발문 모음

- 제시문 [가]~[아]를 비슷한 관점에 입각한 것끼리 두 범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5점] (2021 모의)
-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2020 사회)
-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2) 2번 문제 발문 모음

- 제시문 [자]에 나오는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를 평가하고, 역으로 제시문 [사], [아]의 관점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지 서술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5점] (2021 모의)
-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라], [마]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2020 사회)
-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 [라]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2.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접근법

(1) 1번 논제

- 1) 성균관대 문제와 비슷하다. 다수의 제시문들을 ‘일정한 기준을 잡아’ 분류하고, 분류 기준을 명시한다.
- 2) 각 제시문을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간추려 핵심만 전달한다.
- 3) 통합적으로 의미를 다시 부여할 필요는 없다.
→ 이 부분은 중앙대와 다르다.

(2) 2번 논제

- 1) 가장 최근에 배웠던 개념인 설명/비판/평가가 출제된다. 일관되게 기준을 잡고 밀고나가면 되기 때문에, 기본반에서와 다른 점은 거의 없다.
- 2) 다만, 경희대는 2번 논제에서 ‘주로’ 미괄식, ‘가끔’ 양괄식, ‘정말 가끔’ 두괄식을 제시한다. 도대체 왜 미괄식구조로 예시답안을 써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합격자 대다수가 두괄식, 또는 양괄식으로 쓴다.
- 3) 따라서 분량이 부족하지 않겠다면 양괄식을 써주는 것이 가장 좋다.
- 4) 이 때, 중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한다.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아]를 비슷한 관점에 입각한 것끼리 두 범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5점]

제시문 [가]~[아]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을 담고 있다. [가], [다], [라], [바], [아]는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나],[마], [사]는 시간을 단기적으로 보며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가]는 단기의 고통을 참고 천고에 사라지지 않을 이상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다]는 인구문제는 감염병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라]는 헌법은 항구적·불변적인 원칙들을 규정·선언한 것이므로 그것을 잘 이해함으로써 미래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 [바]는 당장의 수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는 그리스 정부가 눈앞의 문제만 생각하고 장기적 고려를 하지 못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나]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교훈을 준다. [마]는 ‘주52시간’ 제도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저임금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심폐소생술로 우선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문제 2>

제시문 [자]에 나오는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를 평가하고, 역으로 제시문 [사], [아]의 관점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지 서술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5점]

제시문 [자]는 시간에 대한 베르그송의 철학적 관점을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길거나 짧게 구분하는 물리적 시간은 참다운 시간이 아니고 실용적 의미만 지닐 뿐이다. 참다운 시간은 각자의 체험이고 각자가 달리 느끼는 것이다.

베르그송의 관점에서는 제시문 [사]와 [아]가 공통되게 시간을 물리적·실용적 차원으로만 이해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를 단기 부양책으로 살리는 방안을 주장하는 가운데 개인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에서는 역으로 국가 장기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경시한다. 베르그송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일반화해서 단기나 장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각 개인의 체험을 소중하게 공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와 [아]의 관점에서는 물리적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를 이뤄 함께 살고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때론 짧고 때론 길게 구분해봐야 한다. 그래야 경제나 재정에 관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의 철학적 시간 개념은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으나 사회를 가꿔가는 데는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할 수 있다.

<문제 3>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지급되었을 때) 향후 10년 동안 어떤 해에 고용된 유형 A, B의 사람 수를 나타내는 확률변수를 각각 X_A, X_B (Y_A, Y_B)라고 하자.

(1) Y_B 는 시행의 횟수가 400이고 성공확률이 0.8인 이항분포를 따른다: ($Y_B \sim B(400, 0.8)$). 그런데 시행 횟수(n)가 크고 성공확률이 p 인 이항분포는 평균이 np 이고 분산이 $np(1-p)$ 인 정규분포로 근사하여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유형 B의 사람들 중 324명 이상이 고용될 확률을 정규분포로 근사한 후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다.

$$P(Y_B \geq 324) = P(Z \geq \frac{324 - 320}{8}) = P(Z \geq 0.5) = 0.5 - 0.191 = 0.309$$

(2) 정부의 기대재정수입: 기대 고용자로부터 거둬들일 세금

정부의 기대재정지출: 기대 실업자에게 지불할 실업급여+1회 고용지원금(지불할 경우에만 해당)

각각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정부의 기대수입과 기대지출은 다음과 같다.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매해 $E(Y_A) = 100 \times 0.9 = 90$ 명, $E(Y_B) = 400 \times 0.8 = 320$ 명이다.

-매해 유형 A 고용자로부터 $90 \times 20 \times 0.1 = 180$ 냥, 유형 B 고용자로부터 $320 \times 10 \times 0.1 = 320$ 냥, 총 금화 500냥, 즉, 향후 10년간 총 기대 재정수입은 금화 5,000냥이다.

-매해 유형 A 실업자에게 $10 \times 2 = 20$ 냥, 유형 B 실업자에게 $80 \times 2 = 160$ 냥, 총 금화 180냥, 즉, 향후 10년 동안 기대 실업급여 총액은 금화 1,800냥이다. 또한, 고용지원금은 총 3,000냥이므로 향후 10년 동안 총 기대 재정 지출은 금화 4,800냥이다.

-따라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면 10년 동안 기대 재정 수지는 금화 200냥 흑자다.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해 $E(X_A) = 100 \times 0.8 = 80$ 명, $E(X_B) = 400 \times 0.5 = 200$ 명이다.

-매해 유형 A 고용자로부터 $80 \times 20 \times 0.1 = 160$ 냥, 유형 B 고용자로부터 $200 \times 10 \times 0.1 = 200$ 냥, 총 금화 360냥, 즉, 향후 10년 동안 기대 재정 수입은 금화 3,600냥이다.

-매해 유형 A 실업자에게 $20 \times 2 = 40$ 냥, 유형 B 실업자에게 $200 \times 2 = 400$ 냥, 총 금화 440냥, 즉, 향후 10년 동안 기대 실업급여 총액은 금화 4,400냥이다.

-따라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기대 재정 수지는 금화 800냥 적자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제시문 [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바이러스 유행 시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당해에는 재정 적자가 예상되지만, 향후 10년 동안 기대 실업률을 낮추어 실업급여 지출은 줄고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